

## ITC, SiRF의 브로드컴 특허 침해 인정

**미**국의 광대역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 Corp.)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SiRF 테크놀로지 홀딩스(SiRF Technology Holdings Inc.)가 브로드컴의 특허 6건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 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브로드컴의 완전자

회사인 글로벌 로케이트(Global Locate Inc.)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항법장치(GPS)의 프로세스 및 감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 기술로 SiRF의 SiFRstar III와 SiRFInstant GPS 아키텍처 등이 동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6인의 위원들에 의한 최종 판결은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로드컴은 “2007년 7월에 인수한 글로벌 로케이트와 글로벌 로케이트를 ITC 및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SiRF와의 모든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5월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출처 : Business Journal

##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미** 특허상표청(USPTO) 상표항고 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이 계쟁중이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야구팀 로고로, 서던 캘

리포니아 대학이 사용하는 로고와 유사하게 겹쳐 있는 형태의 “SC” 문자로 구성된 상표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은 SC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우편용 약자이며, 다른 기관들도 명칭에 같은 약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 연방상표로 등록해 놓은 동 로고의 무효를 주장했다.

USPTO 심판원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 본 상표를 처음 등록했으며, 동 대학이 SC라는 로고를 꾸준히 사용해온 것에 반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SC라는 로고의 사용을 중단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던 캘리포니아가 동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출처 : Business Journal



[이미지 출처: thefieldof65.com]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야구팀 로고



[이미지 출처: garnetandblacksports.com]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야구팀 로고



## 中 중급인민법원, '와하하' 상표 분쟁에서 다농의 항소 기각

중국 항저우의 와하하 그룹(Wahaha Group)은 성명을 통해 '와하하' 브랜드를 둘러싸고 계쟁 중인 상표권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프랑스의 식품 대기업 다농 그룹(Groupe Danone SA)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와하하 그룹의 상표권을 인정한 항저우 중재위원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수 상표 중 하나인 "와하하(Wahaha)" 상표의 소유권이 와하하 그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와하하 그룹은 "당사는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크게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1년간 계속된 분쟁 끝에 '와하하' 라는 상표가 마침내 합법적으로 동사의 소유가 되었다" 고 전했다. 다농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동 상표권 분쟁은 2007년 4월에 다농이 공개적으로 동사와 공동벤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하하 그룹이 불법적으로 와하하의 상표를 이용한 경쟁상품을 다른 경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와하하 그룹을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양사는 중국, 미국, 스웨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와하하와 다농의 변호인단은 모두 중국법원들이 현재까지는 와하하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내년 초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중재위원회(스톡홀름)의 결정이 양사의 공동벤처사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출처 : Reuters

